

경제

창투보조금 받은 광주·전남 71개사 경영개선 실적 살펴보니

매출 年평균 31%씩 늘고 업체당 직원수 8.6명 증가

2007~2009년 지역 128개 업체 271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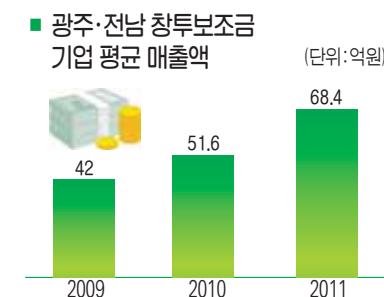
#. 광주지역 금속가공업체 A사는 지난 2009년 창업해 정부로부터 보조금 1억8700만원을 받았다. 이 회사는 보조금을 밀기름으로 성장해 1억5000만원에 불과했던 첫 해 매출이 지난해 34억원으로 2년새 2166% 늘어났다. 직원도 초기 5명에서 3명 더 채용했다. A사 대표는 “창업 초기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창업투자보조금은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연 평균 매출이 30% 이상 늘고, 직원도업체당 평균 8.6명 불어났다.

평균 영업이익도 지난 2009년 2억 1000만원 적자에서 지난해 2억60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시이익도 2009년 4억2000만원 적자에서 지난해 7000만원 흑자로 돌아섰다.

고용창출 효과도 톡톡히 봤다. 응답 기업 71개 사 가운데 32개 사가 보조금을 활용해 총 277명을 추가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8.6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창업



한 기업에 한시적으로 실시됐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총 128개 업체(광주 34개, 전남 94개)에 271억9500만원(55억3800만원, 216억5700만원)이 지원됐다.

정수봉 광주전남중기청 창업성장 지원과장은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으로 수혜기업의 매출 신장과 영업이익 개선 등 경영 성과를 톡톡히 봤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과 연계해 이운창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최근 화순 전남기술과학고에서 열린 진로직업페스티벌에서 학생들이 ‘숨은 직업찾기’ 게임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중기청 특성화고 취업 돋기 7개교서 진로직업 페스티벌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돋우고자 ‘진로직업 페스티벌’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도전! 내 꿈, 희망찾기’를 주제로 지난 9일 화순 전남 기술과학고를 시작으로 광주·전남 지역 특성화고 7곳에서 페스티벌을 진

행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모두 올해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곳이다.

페스티벌은 중소기업 이해와 특성화고 전성시대 등을 주제로 한 미니 특강과 취업골든벨, O.X 퀴즈, 숨은 직업찾기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행사는 순천공고(14일), 전남공고(21일), 광주전자공고(23일), 전남여상(28일), 광주여상(29일) 등의 순으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각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종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긴장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헛쳐 눈이 침침하고 이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 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www.indara.co.kr 광주은행 6층(내세계회관사거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관광심의위원회 제120917-증-11712호 [광고]
광주점 062-368-5075



인다라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박사 김병삼원장

현대인 누구나 겪고 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의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기가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깔깔하고 눈이 아프다
- 오후민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안이 뿌예진다
- 다른시름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미음이 금하고 쉽게 흐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기침 옆구리가 걸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기아차 ‘더 뉴 K7’ 출시…“준대형차 판도 바꾼다”

기아자동차는 13일 디자인과 안전·편의 기능을 개선한 준대형 신차 ‘더 뉴 K7’을 출시했다.

2009년 11월 기아차 K 시리즈의 첫 주자로 탄생한 K7의 이름을 이어받은 더 뉴 K7의 외관은 보다 역동성이 있게 바뀌었다. 실내공간은 관, 대형차급으로 고급스러워졌다.

고객이 선호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서준관 기아차 국내마케팅실 상무는 “K7을 국내에서 월 3000대, 올해 총 5400대 판매할 것”이라며

“2014년에는 연간 내수 4만3000대를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서 7만대를 판매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고객 연령대가 젊어져 K7은 35~45세가 주요 타깃”이라며 “1일부터 사전 계약을 받은 결과 1800대가 계약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차는 내년 카렌스 후속 차량을 비롯한 신차 2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K5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은 내년 하반기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3일 서울 리조트호텔에서 열린 기아차 ‘더 뉴 K7’ 발표회에서 장혁, 이다해 등 드라마 ‘아이리스N’ 주연배우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올 구조조정 대상 中企 97곳

작년보다 26% 늘어…제조업·부동산·건설업 順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부동산·건설업을 중심으로 국내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 재권단이 97개 중소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지난해보다 26.0%(20개)나 증가했다. 회계법인 감사를 받는 외감법인이 60개로 23.3% 늘었고, 비외감법인은 35.3% 늘어난 23개다.

재권단은 지난 7월 부실 가능성이 있는 1천356개 중소기업을 ‘제부평가

대상’으로 지목, 3개월간 신용위험 평가를 벌였다.

세부평가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 역시 지난해보다 227개(20.1%) 증가했다.

평가가 정례화한 금융위기 이후 평가 대상은 올해가 가장 많다.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해진 97개 중소기업 가운데 45개는 ‘C등급’을 받아 재권단과의 협의로 기업 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이 추진된다.

‘D등급’을 받은 나머지 52곳은 재권단의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도모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법정관리 신청 가능

성이 매우 크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 채권 금융회사들이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고 적극적인 구조 조정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4개로 가장 많고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13개였다.

도·소매업 11개, 음식·숙박업 등 기타업종이 10개, 운송업이 6개다.

이 가운데 부동산·건설업의 구조

조정 중소기업(26개)은 지난해 14개

보다 85.7%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조조정 대상 97개 중소기업에 금융권이 공급한 신용은 1조2천735억 원이다. 올해가 8천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961억원, 보험사 221억원 등이다.

/연합뉴스

호남 장수기업 희망포럼

16일 광주 센트럴호텔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센트럴호텔에서 광주와 전남·북지역 중소기업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지역 천년 장수기업 희망포럼’을 열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3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소세를 내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로 신청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광기술원

조달청 검사기관에 선정

한국광기술원이 조달청 LED조명 분야 조달물품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광기술원은 13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비수도권기관 중 처음으로 LED조명 분야 조달물품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LED조명 제품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조달물품 전문 검사기관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 기업들은 애로를 겪어왔다.

이번 광기술원의 검사기관 지정으로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가는 불편을 덜고 조달물품 품질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기술원은 LED조명 제품에 대한 KS·고효율에너지기자체·UL 인증 등 각종 국내외 인증 검사와 연계해 종합적이고 효율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호 광기술원장은 “10여년간 축적된 LED조명 제품에 대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고 신속한 검사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지수

1,889.70 (-11.17)

코스닥지수

513.80 (-7.63)

금리 (국고채 3년)

2.78% (-0.01)

원·달러 환율

1,089.90원 (+1.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첨단2지구 토담빌딩 상가·분양 임대

“8,000세대 독점상권 선점가능”

1층	농협, 카페베네, 투시랑 입점 확정
2층	보험, 증권사, 호프, 병·의원
3~5층	전문클리닉, 한의원
6~7층	전문학원
8층	패밀리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 BAR

준공
완료



시공 | 토담건설 분양 및 임대문의 | 062-576-8938 · 016-885-0881